

책으로 세상을 읽다 손석희가 마주한 한국 언론의 장면들 『장면들』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장면들』 손석희 저, 2021 / 출처 : YES24

세계 저널리즘 동향을 파악하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46개국 중 3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지언정, 그 안에서도 신뢰받는 ‘언론인’은 분명 존재한다. 지난 2007년 이후 줄곧 신뢰도 1위로 꼽히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다(‘시사IN’ 조사).



언론인 손석희

그는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주로 맡았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100분 토론」은 언론인으로서 그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2013년 JTBC로 옮긴 이후에는 보도 담당 사장 및 앵커를 동시에 맡으며, ‘세월호 참사’, ‘태블릿PC 국정농단’ 등 한국 사회

에 굽적한 족적을 남긴 보도를 이끌었다. 현재 그가 가진 위상은 이런 평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손석희에 대한 외부의 평가일 뿐, 언론인으로서 그의 철학, 가치관 등을 전부 나타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손석희는 자신을 “레거시 미디어 시대의 말석에 앉아 버티다가 운 좋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사람”으로 칭한다. 특히 그가 JTBC에서 일했던 시기는 매스미디어로부터 뉴미디어로의 본격적 전환이 일어났던 때다. 그러면서 언론이 노출한 문제와 한계점들을 온몸으로 겪었을 터. 그는 2020년 앵커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느낀 한국 언론의 현실과 그에 대한 성찰을 담아 『장면들』(2021)이란 에세이로 엮어냈다. 한마디로 ‘손석희의 저널리즘 에세이’다.

줄거리 - 손석희가 말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

책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저자가 내세운 개념인 ‘어젠다 키핑’을 중심으로 그가 JTBC에서 보도한 굵직한 사건들이 소개된다. 저자에 따르면 어젠다 키핑은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인 ‘어젠다 세팅’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단순히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의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중 세월호 참사는 저자가 진행한 JTBC 「뉴스룸」이 본격적으로 어젠다 키핑을 실천해나가게 된 사건이었다. 주요 언론사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청송할 때, JTBC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실종자 및 희생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줬다. 또한 무려 287일 동안 기자들이 팽목항에 체류하면서 끈질기게 세월호 이슈를 보도했다. 그 결과 많은 유가족이 JTBC를 믿고 의지했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JTBC 「뉴스룸」에 직접 제보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왜 세월호 어젠다를 지키려 했을까, 인간의 얼굴을 한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면...”(50쪽)이라고 썼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요했던 어젠다 키핑의 영향은 국정농단 보도로도 이어졌다.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최순실 태블릿 PC’는, 세월호 보도를 계기로 JTBC 뉴스에 호감을 갖고 있던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 덕분에 입수 가능했다. 한편, 어젠다 키핑이 언론사가 실천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다. 한 이슈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에 따른 비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게 마련이다. JTBC의 ‘미투’ 보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메갈손’이라는 인신공격성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미투 보도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어젠다 키핑”(199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젠다 키핑’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았다.

2부는 저자가 MBC에서 JTBC로 넘어오게 된 과정과 계기, 그가 JTBC에서 시도한 새로운 뉴스 포맷 등이 소개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앞으로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녹여내고 있다. 정치 권력에 휘둘렸던 공영방송을 떠나 JTBC에서 보도 전권을 위임받은 저자는 ‘팩트, 공정, 균형, 품위’를 강조했다. 또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전통적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 어젠다 키핑도 그중에 하나다. 그는 어젠다 키핑을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를 강조했다. 그가 만든 「뉴스룸」의 코너 ‘앵커브리핑’, ‘팩트체크’, ‘비하인드 뉴스’, ‘문화초대석’ 등은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한 장치였다.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다 / 출처 : Pixa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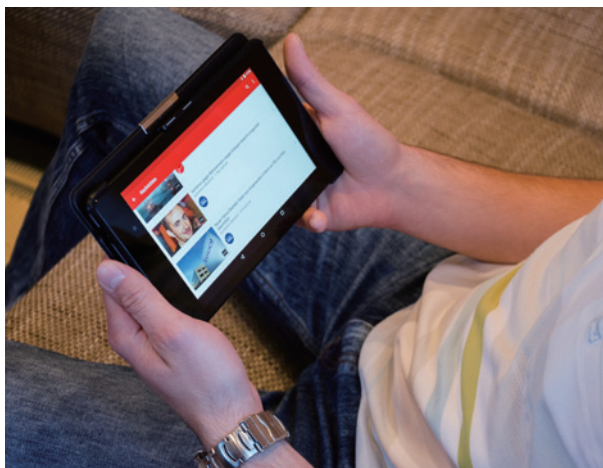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정국 당시 광화문 집회 / 출처 : 위키피디아



끝으로 저자는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가치로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자세로서 ‘합리적 진보’를 강조한다.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문제 제기는 기존의 현상을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런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전통적 저널리즘의 가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일 정보의 홍수가 쏟아진다 / 출처 : Pexels

책 제목 『장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자는 자신이 저널리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수많은 장면을 한 권의 에세이로 엮어냈다. 사실 에세이 자체가 자신의 삶에서 겪은 장면들의 연속이므로 굳이 ‘장면들’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장면’이란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언론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자는 장면으로 구분해서 책을 쓴 이유로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까지 쓰면서 주관적, 개인적 사념으로 흐르는 우(愚)를 피하기 위해서였다”(10쪽)라고 말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장면만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의 언론관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는 ‘어젠다 키퍼’이다. 어젠다 키퍼라는 단어 자체는 손석희 이전에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저자 역시 자신이 주장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다. 다만 동시에 ‘의제를 설정해서 지키는 과정’ 자체를 저널리즘에서 완전히 창의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지 이를 실현한 매체가 거의 없었을 뿐이다. 이는 곧 한

언론사가 의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므로 저자가 JTBC에서 굶직한 사건을 다루며 ‘어젠다 키퍼’를 실천한 것은 언론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수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어느 이슈가 중요한지 알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사회 변화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추동력을 얻는다. 어젠다 키퍼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계속 환기하는 것. JTBC의 끈질긴 세월호 보도는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들춰냈으며, 훗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저자는 자신이 이끌고 있던 JTBC 「뉴스룸」을 향한 논란이나 비판도 가감 없이 적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널리즘을 둘러싼 깊이 있는 고민도 털어놓는다. 한 가지 소개하자면, ‘조국 사태와 JTBC의 보도’이다. 당시 JTBC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왜 검찰의 수사 보고를 그대로 받아 적느냐’, ‘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관해 저자는 “우리는 수사 상황은 전하되 반론도 분명히 담았다”(278쪽)면서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정경심 교수의 PC 은닉 등 몇 가지 단독 보도’도 했다면서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의 한 칼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보도에 관한 한, 기레기 판별 기준은 ‘기자다움’보다는 ‘내 편다움’에 가깝다”(275쪽)고 인용했다. 진실에 대한 기준이 진영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겐 이미 각자의 진실이 존재하는 ‘유튜브’가 존재한다”(300쪽)며 약간의 자조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그렇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만 믿게 되었다. 그들에게 진실은 ‘내가 원하는’ 진실이다. 이를 두고 저자는 ‘포스트트루스’ 시대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포스트트루스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일어난 변화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를 모두 경험한 저자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아날로그 미디어의 상징인 브라운관 TV와 디지털 미디어의 상징인 스마트폰 / 출처 : Pexels



전환이 ‘단절’이 아닌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로만 보자면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의 발전은 있었으나, 정보의 흐름이나 분배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기준 역시 바뀔 이유가 없어 보인다”(293쪽)라고 주장했다. 글썄. 이 대목은 과연 논쟁적 주제가 될 만하다. ‘단절’인가, ‘확장’인가. 정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분명 정보의 흐름이나 분배는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면 미디어 권력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무튼 그가 강조한 ‘어젠다 키핑’, ‘팩트, 균형과 공정, 품위’ 등 전통적 저널리즘의 가치는 그의 ‘확장’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덧붙여 지금의 주류 및 레거시 미디어가 ‘단절’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단절이란 곧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레거시 미디어를 대표하는 한 언론인으로서 주류 언론이 여전히 갖는 가치와 역할을 지켜내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의 유튜브에서 전파되는 온갖 가짜뉴스를 보면 더욱 그렇다.

손석희가 제시한 저널리즘의 미래

저자가 JTBC 「뉴스룸」에서 표방한 저널리즘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다른 책에서 그가 주장한 ‘한 걸음 더’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손석희 현상 - 신뢰받는 언론인이란 무엇인가?』(강

준만 저, 2017)에서 손석희의 인터뷰 일부가 소개된다. 그는 여기서 “토막토막의 리포트만 남발하는 ‘백화점식’ 뉴스는 망한다”면서 “연결된 콘텍스트를 제시해 한 가지의 정보라도 더 전해준다면, 사람들이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뉴스의 텍스트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역사를 전해주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다. 저자가 「뉴스룸」으로 개편하며 신설한 코너인 ‘앵커브리핑’, ‘팩트체크’, ‘비하인드 뉴스’ 등은 뉴스와 뉴스를 연결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장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젠다 키핑’으로 이어진다.

책의 결말부에 접어들면서 필자에게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다. 스위스 출신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이다. 필자는 월간 『방송과기술』 298호에서 알랭 드 보통의 저서인 『뉴스의 시대』(2014)로 서평을 쓴 바 있다. 저자 역시 『뉴스의 시대』에서 주장한 알랭 드 보통의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한다. 그중 주목할 부분은 뉴스의 ‘중립성과 객관성 탈피’이다.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에서 “보도의 중립성에 대한 집착을 저쪽으로 치워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뉴스가 기행 문학과 같은 예술의 몇 가지 기교를 일부 차용해야 한다”면서 “독자의 공감 능력을 확장하고, 걸음으로 드러난 사실 아래의 보편적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석희의 뉴스에서 이 대목이 적용된 사례는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이다. ‘앵커브리핑’은 손석희가 어떤 사안에 대한 그만의 생각과 관점을 담아 전달하는 코너였다.



작가 알람 드 보통과 그의 대표 저서 『뉴스의 시대』, 2014 / 출처 : 문학동네

즉, 뉴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탈피한 것이었다. 특히 시, 소설 등 인문의 소양을 담아 주제를 풀어냈다는 게 주목할 만했다. 한국방송비평학회는 ‘앵커브리핑’을 두고 “뉴스의 품격을 제고하고, 뉴스의 인문학적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경직된 시사 보도에 활로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 주제 역시 많은 논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1984년에 데뷔한 ‘오래된’ 언론인인 저자가 그 누구보다도 ‘혁신적’인 사고와 시도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혁신이 침체된 저널리즘을 일으킬 단초가 될 줄 누가 알랴.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널리즘을 위해 운동을 할 수는 있어도, 운동을 위해 저널리즘을 하지는 않는다”(284쪽). 저자가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지켜온 신조다. 언론인이 저널리즘을 탄압하는 세력을 돌파하기 위한 운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언론계에 입문해서 정계로 입성한 수많은 언론인과 달리, 오랜 기간 그가 ‘언론인’의 자리를 지켜오게 한 원동력이었을지 모른다. 지금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잠시 헷갈렸던 대목은 있었다. 저자는 조국 사태에 관한 보도를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왜 이뤄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뤄지지 못했다”(281쪽)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설득

력과 동력을 잃어가기도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283쪽)라고도 썼다.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은 하나의 ‘운동’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언론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짚어내야 한다는 말은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운동’을 위해 저널리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필자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저자가 말한 ‘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손석희가 신뢰받는 언론인 1위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탐탁지 않은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썼듯이, 저자만큼 저널리즘에 관해 많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또 성공까지 이뤄낸 언론인도 드물지 않을까.

서평에서 적은 것 외에도 현실을 날카롭게 관통하는 그의 저널리즘 철학을 여럿 살펴볼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서평에 담지 못해 아쉬운 적은 오랜만인 것 같다. 